

# 일본의 지역-대학 연계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I. 논의의 필요성 및 목적

-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가 2023~2024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임(이하, 라이즈)
- 라이즈는 그동안 교육부의 소관으로 되어있던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행·재정적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주도의 고등교육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금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과 함께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되었음
-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재정난으로 폐교에 이르는 등 오늘날 한국의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현황과 유사한 상황을 겪어왔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사회의 기업이 연계된 지역연계플랫폼 구축, 지방대학창업전략, 대학컨소시엄 추진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일본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대학이 지역인재를 배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자체, 지역기업 등과 연계되어 교육·연구뿐만 아니라 대학의 제3의 역할로서 지역공헌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지역연계·협업 정책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
- 본 이슈브리프는 위와 같은 배경하에 한국보다는 먼저 대학의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과 지역-대학간 연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사례의 소개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라이즈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음

## II. 일본의 지역-대학 연계정책

### 대학의 사회공헌

- 문부과학성의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는 2005년 제시한 ‘일본의 고등교육 장래상’을 통해 처음으로 대학의 사회공헌(지역공헌)에 대해 언급함. 동 답신에서 중앙교육심의회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그 자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공헌이지만 최근에는 국제협력, 공개강좌, 산학협력을 통한 보다 직접적인 공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공헌의



역할을 대학의 '제3의 사명'으로서 인식해야 할 시대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대학이 갖는 기능을 ① 세계적 연구·교육 거점, ② 고도전문직업인 양성, ③ 폭넓은 직업인 양성, ④ 종합적 교양교육, ⑤ 특정 전문적 분야(예술, 체육 등)의 교육·연구, ⑥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 ⑦ 사회공헌 기능(지역공헌, 산학협력, 국제교류 등) 7가지 유형을 제시함

- 위와 같은 대학의 사회공헌에 대한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은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에 반영되어 구체화 되었음. 2006년 12월 전면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7조제1항은 “대학은 학술의 중심으로서 높은 교양과 전문적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지견을 창조하며 그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고 규정하였고, 2007년 6월 개정된 「학교교육법」 제83조제2항은 “대학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연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라고 규정함
-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의 지역연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대학간 연계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대학컨소시엄'의 지역연계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고 대학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지역도 증가함
- 문부과학성은 2012년 6월에 발표된 '대학개혁실행플랜'을 통해 지역활성화의 핵심이 되는 대학, 사회의 지적기반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 COC(Center of Community)기능의 강화를 향후 대학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지역연계 정책 추진 현황**

**대학컨소시엄**

- 일본의 18세 학령인구는 1992년 205만명으로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2022년 112만명에서 2030년에는 105만명, 2040년에는 88만명으로 감소하여 대학 진학자수가 2017년 기준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학컨소시엄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도태를 피하고 대학 간 및 대학·지역간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공존·공생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일본 전국에 설립된 대학컨소시엄은 지역별로 홋카이도(2), 도호쿠(6), 간토(8), 추부(11), 긴키(8) 추고쿠(3), 규슈·오кина와(8) 총 46개가 설립되어 활동 중임
  -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① 학점교환사업, ② 평생교육사업, ③ 인턴십사업, ④ 교원·교직원 역량강화사업(FD/SD), ⑤ 고교-대학 연계사업, ⑥ 유학생 파견, 유학생 유치 등의 국제화사업, ⑦ 대학생 지역참여활동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사립대학 지역사회공헌 지원사업**

- 본 사업은 문부과학성의 '사립대학개혁종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제3유형인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립대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지역과 연계된 교육과정 편성과 사회인 참여,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추진 등 지역의 경제, 사회, 산업, 문화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연계형'과 대학간, 지자체, 산업체간의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형성을 통한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형'으로 구분되며, 2022년 현재 지역연계형은 58개교, 플랫폼 형성형은 24개 플랫폼에 111개교가 참여하고 있음

**지방대학·지역산업창업교부금사업**

- 본 사업은 일본 내각부 지방창업추진사무국이 주관하며 지역의 지산학 연계를 통해 매력적인 산업창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형성, 지역산업 전문인재 육성 등 지방창업을 위한 지자체, 대학, 기업간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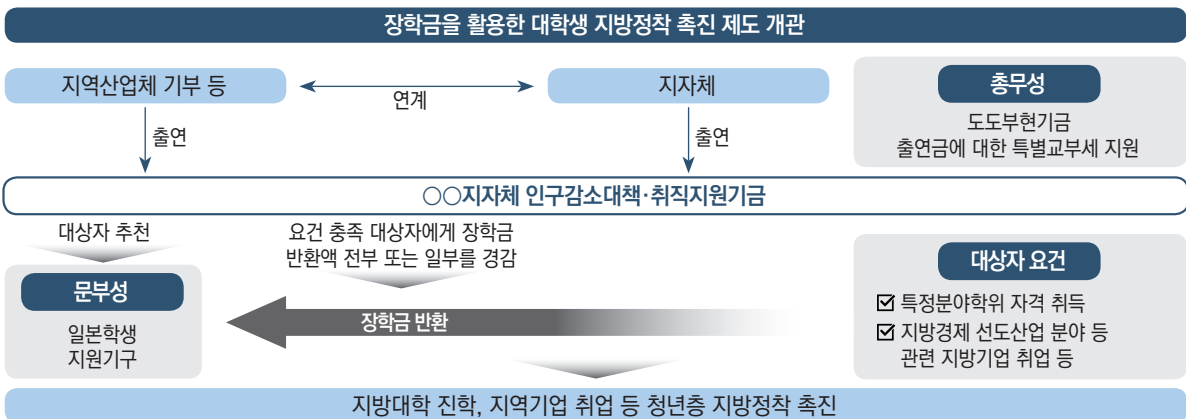
추진되고 있는 교부금사업임. 신청주체는 지자체이며 대학과 기업은 보조사업자로 참여함. 선정되면 10년간의 사업계획이 인정되며 원칙적으로 5년 동안 매년 7억엔을 상한으로 보조금이 지원됨

- 본 사업의 추진절차는 국가가 책정한 지방대학 진흥·청년고용창출에 관한 기본지침에 입각하여 지자체 단체장이 주관하는 추진회의(지자체, 대학, 산업계 등으로 구성)를 조직하고 지역 산업진흥·전문인재육성 등에 관한 계획을 책정함. 지자체가 신청한 계획(10년)을 정부 전문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기본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한 사업계획을 선정하여 교부금을 5년간 지원함. 지자체가 설정한 KPI(핵심성과지표)를 정부 전문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매년 검증하고 PDCA 사이클 체계를 도입하여 반복적인 개선을 하고 있음

### 청년층 고용창출과 지역학생 정착을 위한 사업

#### ▽ 장학금을 활용한 대학생 지방정착 촉진 사업

- 본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산업계가 연계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임. 2015년부터 총무성의 「장학금을 활용한 대학생 등의 지방정착촉진요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지역의 특정 기업에 일정기간 취업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지원 대상이 되는 장학금 종류와 대상자 요건, 지급금액 등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2022년 현재 36개 광역자치단체와 6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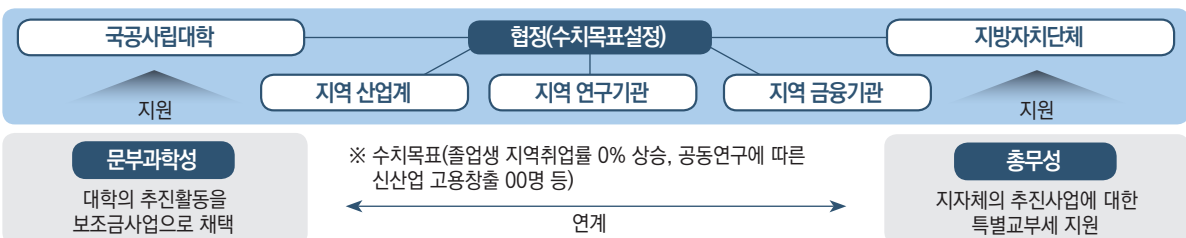


출처: 내각관방 지역·인재·일자리창성본부사무국(2019.1) : 장학금을 활용한 대학생 지방정착 촉진 사례집

[그림 1] 장학금을 활용한 대학생 지방정착 촉진

#### ▽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연계에 의한 고용창출·청년정착 촉진 사업

- 본 사업은 2015년부터 문부과학성과 총무성이 협업하여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연계에 의한 고용창출·청년정착 활성화 사업임. 지자체와 대학 등이 취업률, 고용창출 등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한 '협정'을 체결하고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고용창출·청년정착 사업에 대해 총무성은 지자체를 문부과학성은 대학을 각각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무성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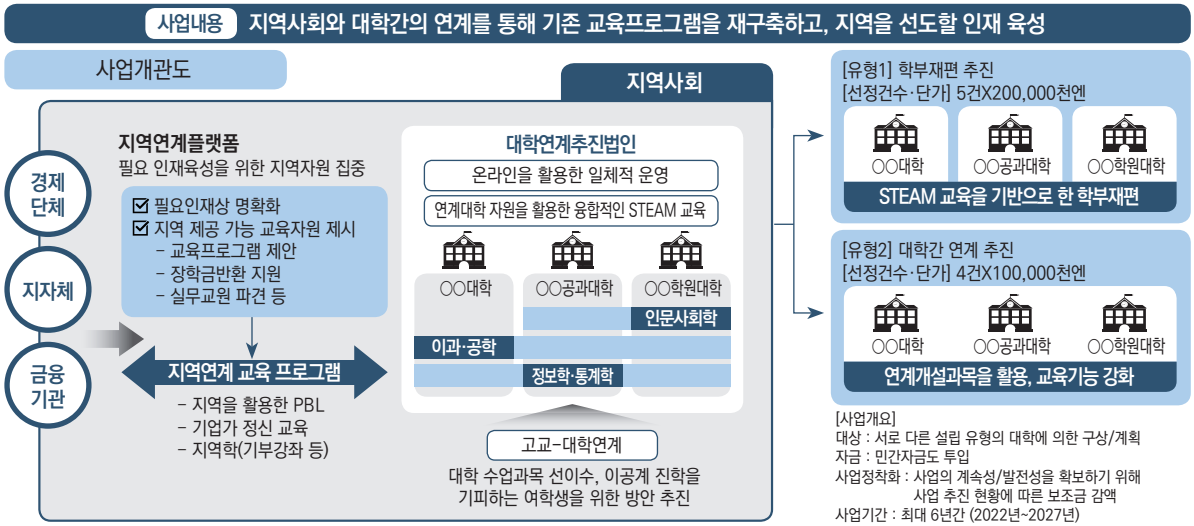
출처: 총무성·문부과학성 합동자료(2015), '지방대학을 활용한 고용창출·청년정착 촉진'

[그림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연계에 의한 고용창출·청년정착 촉진



**SPARC : 지역활성화 인재육성사업**

- SPARC(지역활성화 인재육성사업 Supereminent Program Activating Regional Collaboration)는 지역사회와 대학간의 연계를 통해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을 재구축하고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위한 사업으로 지역대학이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임
- 202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업기간은 6년임. SPARC은 기존의 COC 사업과 대학교육재생가속프로그램(AP사업)을 통합하는 형태로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음. COC가 124학점(이상)으로 구성된 학위프로그램과는 별도의 소위 옵션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었다면 SPARC는 학위프로그램 그 자체를 개선한다는데 차이점이 있음
- SPARC는 기존의 COC사업이 지역과 연계된 특별 커리큘럼을 정규과정과는 별도로 설정되어 운영되었다면 정규과정 자체의 개선·재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 전원이 재구축된 교육과정에 참여함. 재구축된 교육과정에는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테마로 한 실전적 문제해결 과목(PBL)과 기업가 교육, 지역학 등의 과목이 포함되며 지역과 연계된 학위과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문부과학성(2022) 「2022년 대학교육재생전략추진비 지역활성화인재육성사업 ~SPARC~」 공모요령

[그림 3] 지역활성화인재육성사업 ~SPARC~ 개관도

**‘지역(지식)의 거점정비사업’ 대학 COC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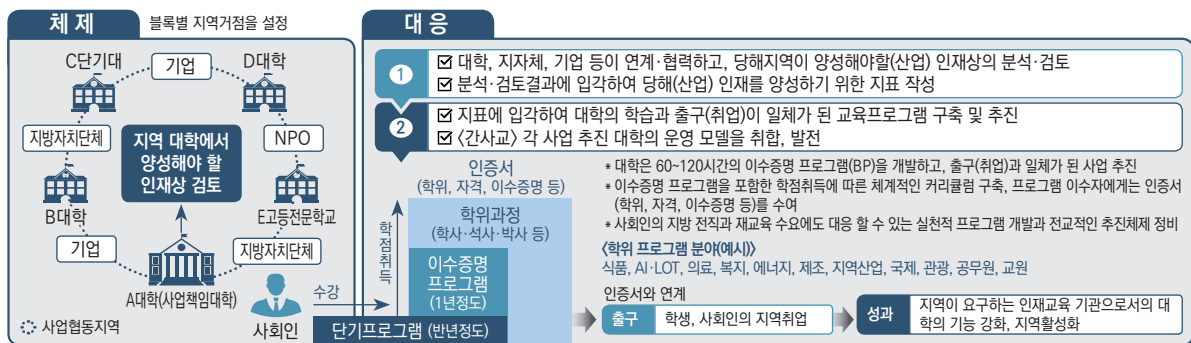
- 대학의 사회공헌에 대한 교육기본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2013년부터 소위 COC 사업을 추진하였음(이하 COC). COC는 Center of Community의 약자로 ‘지역(지식)의 거점정비사업’이라고도 호칭함. 문부과학성은 COC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역을 지향한 교육·연구·사회공헌을 추진하는 “지역을 위한 대학”으로서 교육커리큘럼·교육조직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과제와 대학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의 과제해결, 지역사회와 대학이 공동으로 과제를 공유하여 이에 입각한 지역진흥책의 입안·실시를 목표로 한 실행을 추진하는 대학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COC는 2013년 52건, 2014년 25건이 선정되었으며 예산은 2013년 23억엔, 2014년 34억엔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하였음. COC는 첫째, 지역의 과제와 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교육커리큘럼과 교육조직의 개혁을 동반할 것. 둘째, 지역을 지향한 대학임을 명확히 표명하고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학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셋째, 대학과 지자체간의 소통, 지자체의 지원(재정, 건물등의 무상대여, 인원파견)등 대학과 지자체간에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대학으로 하였음

### 지역(지식)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생 추진사업(COC+)

- COC는 2015년부터 COC+지역(지식)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추진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9년까지 실시함. 2015년에 42건의 선정되어 2015년 44억엔, 2016년 40억엔, 2017년 36억엔, 2018년 21억엔, 2019년 10억엔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짐. COC+는 지자체와 기업이 협업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환경을 창출하고 당해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커리큘럼 개혁을 단행하는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창생의 중심이 되는 ‘인재’의 지방으로의 집적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음
- COC가 지역의 수요와 대학의 자원(교육·연구·사회공헌)을 매칭하여 지역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이었다면 COC+는 지역대학과 지자체, 지역기업, NPO(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여 지역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에 중점을 둔 사업임. 신청요건은 COC의 5가지 요건 외에 지역기업, NPO 등과의 연계와 관련된 2개 요건이 추가되었고 성과지표도 COC가 사업에 대한 연계지자체의 평가에 한정된 반면 COC+는 연계지자체에 의한 기업 등과의 취직률·고용창출수, 사업에 대한 연계지자체 및 중소기업 등의 평가에 대한 지표가 추가되었음

### 대학에 의한 지방창생 인재교육프로그램 구축사업(COC+R)

- COC+는 2020년부터 COC+R(대학에 의한 지방창생 인재교육프로그램 구축사업)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중임. COC+가 청년층의 도쿄(수도권) 집중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COC+R은 청년층의 지역취업,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목표로 지산학이 연계하여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표를 책정하고, 그 지표에 따른 학업과 취업이 일체가 된 교육과정(학위과정교육)을 구축·실시하는데 있음. COC+R의 신청자격은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이며 20개 대학이 신청하여 4개 대학(신슈대학, 야마나시현립대학, 오카야마현립대학, 도쿠시마대학)이 선정됨
- COC+R의 목표가 청년층의 지방취업, 지방대 졸업생 취업률 제고에 있는 만큼 신규졸업생의 지방정책과 지역활성화 추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심사방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4개 대학이 선정되었음. 첫째, 고등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일체가 된 의론의 장을 구축하고, 실증에 입각한 현황·목표의 공유, 연계협력의 근본적 강화를 도모할 것. 둘째, 학교장의 책임하에 대학본부가 주체적으로 개입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당해 대학 전체의 개혁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 구축·실시, 성과의 파급, 사업의 계속성·발전성 확보 등을 도모할 것. 셋째, 구축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사회인의 직업에 필요한 능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업에 필요한 실천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육성할 것으로 목적으로 실무에 관한 지식,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넷째, 보조기간 종료 후에도 대학이 지역의 인재육성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관계자간의 상시적 연계체제를 지속하고, 공적인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구체적인 자금환경 체계를 도모할 것
- 선정된 대학에는 최대 5년간 재정지원(추진대학 년 5,860만엔, 간사교 년 7,800만엔)을 하며 선정된 대학은 지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지표와 교육커리큘럼을 구축하고 지표에 입각한 교육과 출구(취업)가 일체가 된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육성기관으로서의 대학 기을 강화하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 지역활성화에 기여해야 함



출처: 문부과학성(2020) : 대학에 의한 지방창생 인재교육프로그램구축사업 설명회 자료

[그림 4] COR+R 개관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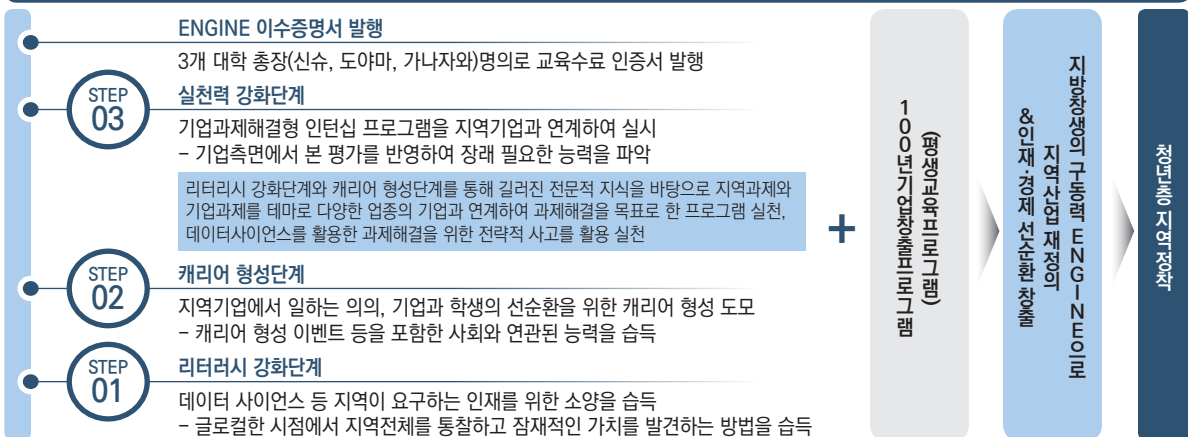


### Ⅲ. COC+R 추진사례 신슈대학 「ENGINE」

#### 지역기간산업을 재정의·신창조하는 인재창출프로그램 「ENGINE」

- 본 사업의 책임대학은 신슈대학이며 참여대학은 도야마대학과 가나자와대학임. 신슈대학은 나가노현 마쓰모토시를 비롯한 5개 캠퍼스에 8개 학부를 둔 국립대학법인으로 2020년부터 COC+R 책임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역기간산업을 재정의·신창조하는 인재창출프로그램」 「ENGINE」<sup>1)</sup>을 추진중임
- 동 프로그램은 인구감소와 COVID-19에 따른 지역산업의 붕괴의 가속화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역과제에 대응하여 ‘이동·교류·체험’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지역창생을 위한 4개의 중심과제인 교통, 관광, 식문화, 인프라에 입각한 지역산업구조를 쇠신할 미래인재의 육성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역이 육성해야 될 바람직한 인재상을 첫째, 데이터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직관력을 갖춘 지역메니지먼트 능력, 둘째,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능력, 셋째, 미래사회를 직관할 수 있는 창조성 풍부한 돌파능력을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3개의 광역자치단체 소재 대학간 협업을 통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은 발상력을 키우고 지역발전에 힘쓰는 기업과의 연계를 중시한 지역과제의 실천적·체험적 학습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ENGINE 교육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임대학인 신슈대학과 도야마현의 도야마대학, 이시카와현의 가나자와대학 3개 대학의 특징을 조합하여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1단계는 리더러시 강화단계로 데이터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 상호 수강과 다양한 리더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단계는 캐리어 형성단계로 광역형 캐리어 형성 플랫폼을 구성하고 3개 대학간 협동이벤트 과목이 개설되어있음. 3단계는 실천력 강화단계로 3개 대학간의 연계로 실시하는 PBL(Problem-based learning) 방식의 인턴십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지역과 지역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해결형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ENGINE 교육프로그램의 첫 번째 특징은 아래 <표 1>과 같이 ① 사회에 대한 영향, ② 기업변혁에 대한 기여, ③ 대학의 체질변화라는 3개의 KGI(Key Global Indicator/경영목표달성지표)를 설정하여 ENGINE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과 기업의 변혁, 대학의 체질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임

#### 지산학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산학 연계 교육 실현



출처: 신슈대학 캐리어교육지원센터 'ENGINE 리플렛'

[그림 5] 3단계로 구성된 ENGINE 교육프로그램

1) ENGINE : Engagement between Industry and Education for Innovation and Evolution

&lt;표 1&gt; ENGINE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변혁과 인재의 선순환을 위한 KGI 설정

KGI 1 사회	ENGINE 교육프로그램의 지역관심도/기대도 ▼ 언론 출현 빈도 평가 ▼ 3개 지역의 지방언론 노출도 평가 ▼ 교육기관·기업·행정기관의 시찰(상담)횟수	▶▶▶	지역사회의 인식변화
KGI 2 기업	ENGINE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업의 체질 변화 ▼ 매출 변화·신규사업 진출 등 ▼ 고용지수(3대학의 취업자수 변화/ENGINE 채용인원 설정) ▼ 3대학 인턴십프로그램 참가자수 변화	▶▶▶	지역기업의 역량변화
KGI 3 대학	학생의 대학(ENGINE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도 향상 ▼ ENGINE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교직원)과 학생의 관계도 변화 ▼ 프로그램 수강생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 ▼ 이수증명서 발생 ▼ 학생·교직원에 대한 조사 실기(프로그램 수강자/비수강자 비교 등)	▶▶▶	지역대학의 역량변화

출처: 신수대학 캐리어교육지원센터 '대학·기업·지역 연계가 ENGINE 프로그램 자주화를 가속한다'

- 두 번째 특징은 3개의 광역지자체를 연계한 PBL형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임.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천력 강화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턴십은 3개의 유형이 설정되어 있음. 제1유형은 통상적인 기업인턴십, 제2유형은 지역과제해결형, 제3유형은 3개 광역자치단체 협업의 지역과제연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은 10일간 3개 대학(가나자와대~도야마대~신수대)을 순회하며 필드워크를 수행함. 또한 기업이 멘토로서 온라인 대면과 조연을 통해 성과도출 과정까지 함께 참여함. 학생이 주체적으로 과제를 발견하고 기업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적절한 지시, 조연을 통해 기업과 학생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둠
- 세 번째 특징은 지역이 요구하는 변혁인재의 요건을 루브릭(Rubric/학습자의 학습결과물이나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전에 공유된 기준)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점임. 3개의 키워드인 ① 혁신(innovation), ② 연계(connection), ③ 돌파(breakthrough)에 입각하여 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변혁인재가 갖추어야 할 능력지표인 루브릭을 통해 학생과 대학, 지역과 기업이 학습도달점을 공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변혁인재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틀을 구축하고 있음
- 네 번째 특징은 1년씩 3단계로 나누어 3개 대학의 공통된 프레임 설정하여 각 학년에 따른 단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임. 1년차는 리더십 강화단계를 통해 지역기업에 일하는 의미를 느끼고 데이터 지향적인 사고력을 배양하고, 2년차인 캐리어형성단계를 통해 지역기업 직장인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의 캐리어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3년차인 실천력 강화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배양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역과제와 기업과제를 테마로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과제해결을 위한 PBL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함

## IV. 시사점

- 「교육기본법」, 「지방대육성법」 등 고등교육 관련법령에 대학의 사회 공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이 교육과 연구 기능이었다면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대학의 사회공헌 특히 대학 소재지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강조되고 있음. 이제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중요하다는 점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대학의 사회공헌에 대한 당위성과 법적근거를 마련해야함
- 지역별 대학컨소시엄 구축이 추진되어야함. 현재 추진중인 라이즈 체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중앙라이즈센터와 지역라이즈센터를 통해 라이즈의 사업계획 수립, 운영, 관리, 성과평가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라이즈



체계내에서 지산학 연계의 실무적·현장적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라이즈센터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역별 대학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역내 대학, 지자체, 기업, NPO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협업·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 대학컨소시엄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셋째, 라이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정착을 위한 학업과 출구가 일체가 된 교육프로그램 구축이 추진되어야 함. 지산학 협력의 궁극적 목적은 지자체와 산업계(기업),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을 이끄는 지역상생·혁신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임. 신입생단계 부터 졸업에 이르는 단계적 과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실적인 지역과제와 기업과제 해결을 위한 PBL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이 요구하는 혁신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커리큘럼·교육조직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본의 COC사업, 지방창생정책, 지산학 연계 정책 등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균형발전에 있으며, 한국의 라이즈 체계 구축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라이즈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지역소멸과 청년층의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임. 일본의 지역연계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한국보다는 수도권 집중이 심하지 않고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센다이, 삿포로 등 지역 권역별로 경제권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임
- 일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으로 인구유입은 지속되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음. 그러나 제2차 아베내각(2012.12월~2014.12월) 이후 지역·인재·일자리 창생본부를 설치하여 정보지원, 인력지원, 재정지원 3가지 축으로 구성된 로컬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이래, 제4차 아베내각(2017.11월~2020.8월)은 '지방거점도시'를 육성해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심·거점으로서 인근 지자체를 포함하여 지역전체의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그 결과 2010년 이후 연평균 수도권으로의 순인구유입 규모는 2000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지방 10대 주요 도시 순인구유입자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도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이 모든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한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라이즈체계의 지역혁신 선도대학 육성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대학 30' 소재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점도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이슈브리프는 연구자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 참고문헌 및 자료

1. 문부과학성(2015). 지역(지식)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추진사업 ~지역(지식)거점 COC+
2. 문부과학성(2020). 대학에 의한 지방창생 인재교육프로그램구축사업 설명회 자료 문부과학성(2020).
3. 문부과학성(2020). 지역연계플랫폼 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고자료집
4. 문부과학성(2022). 「2022년 대학교육재생전략추진비 '지역활성화인재육성사업~SPARC~」 공모요령
5. 신슈대학 캐리어교육지원센터. 'ENGINE 리플렛' (<https://engine-prgm.shinshu-u.ac.jp/>)
6. 정민수 외(2023). BOK 이슈노트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한국은행
7. 정원창, 송선영, 김민희, 이정은(2019). 대구·경북지역 대학컨소시엄 구축방안 연구. 대구·경북지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 보고서